

등록안내



오시는 길

등록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 무료



등록신청서

참가자구분: ☐ 정회원 ☐ 비회원 ☐ 전공의·군요원

참가자성명:

의사면허번호:

전문번호:

병원:

주소:

연락처: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 지하로 연결된 코엑스몰 진입 후 메가박스 영화관과 아쿠아리움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 도보



문의처

대한고관절학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별관 230호 임상교학실)

☎ TEL: 02-440-7497

☎ FAX: 02-440-7498

✉ E-mail: khs201213@naver.com

고관절학회 회원을 위한

골다공증 전문가 심포지움

- 골다공증에 관한 예정남(暖定男)을 모시고-

■ 일시: 2012년 3월 31일(토)
09:20~16:10

■ 장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 홀

■ 주최: 대한고관절학회 골다공증연구회

■ 후원: 대한고관절학회

존경하는 대한고관절학회 회원 및 임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와 새하기를 맞이하여, 대한고관절학회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골다공증 심포지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장한 수식어와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면서 고령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일 수도 있겠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골다공증성 골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기초를 만들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이 골다공증 연구회를 통해,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진료와 연구는 뼈를 지키는 정형외과에서, 그것도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명사인 고관절 골절을 다루는 우리 고관절학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이미 발생한 골절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병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고관절 골다공증 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세 번째 공식 심포지움입니다. 이번 모임은 학회의 임원과 관심 있는 전문가를 위해 진료에서 실제 발생하는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현 대한 골다공증학회 회장인 원예연 위원장님을 필두로 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연자분들 모두 여러분의 진료 및 환자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일 진료와 연구에 바쁘시겠지만 저희 학회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이 심포지움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고 정리하여 환자 진료에 활용하여 주실 것을 감히 청하오니 부디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여 주신 아주의대 원예연 위원장님과 한림의대 김태영 간사님을 비롯한 골다공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대한고관절학회 회장 황득수

09:20 ~	개 회 사	황득수 (대한고관절학회 회장)
09:30 ~ 10:50	1. 고관절 골절과 골다공증	좌장: 구경희 (서울의대), 원예연 (아주의대)
09:30 ~ 09:45	역학에서 전자간 골절 및 경부 골절을 고관절 골절 또는 비척추 골절로 함께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인가?	황지효 (한림의대)
09:45 ~ 10:00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시 골다공증의 기여도 (보험사 의료자문) : 병적 골절 또는 속발성 골절로 볼 수 있는가?	이영균 (서울의대)
10:00 ~ 10:15	고관절 골절 후의 이차 골절의 예방: 약물로 가능한가? -EBM (Evidence Base Medicine) 자료를 기반으로-	하용찬 (중앙의대)
10:15 ~ 10:30	산모에 발생한 국소적 고관절 골다공증	한계영 (강원의대)
10:30 ~ 10:50	질의 및 토론	
10:50 ~ 11:10	Coffee break	
11:10 ~ 12:15	2. 대퇴골 부전골절	좌장: 양규현 (연세의대), 민병우 (계명의대)
11:10 ~ 11:25	BPs 약제의 장기 사용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실한가?	김이석 (한양의대)
11:25 ~ 11:40	부전 골절 진단 시 골다공증 약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필성 (부민병원)
11:40 ~ 11:55	부전 골절 발견 시 예방적 내과정술은 해야 하는가?	남광우 (제주의대)
11:55 ~ 12:15	질의 및 토론	
12:15 ~ 12:30	Luncheon Symposium	좌장: 성열보 (인제의대)
	- Korean Hip Register Remind -	김태영 (한림의대)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4:35	3. 고관절 영역의 골다공증 약제 사용(I)	좌장: 이수호 (울산의대), 문경호 (인하의대)
13:30 ~ 13:45	고관절 골절 및 인공관절 수술 후 BPs 약제: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나?	김태영 (한림의대)
13:45 ~ 14:00	고관절 수술 후 BPs 약제 투여: IV and oral 어느 것이 좋은가?	지형민 (아주의대)
14:00 ~ 14:15	인공관절 수술 후 응력방패 현상 및 골 융해에 BPs 사용은 효과적인가?	이우석 (연세의대)
14:15 ~ 14:35	질의 및 토론	
14:35 ~ 14:55	Coffee break	
14:55 ~ 15:50	4. 고관절 영역의 골다공증 약제 사용(II)	좌장: 이증명 (국립중앙의료원), 김신운 (경북의대)
14:55 ~ 15:10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ONFH): BPs 약제 실제 사용되고 있는가?	조영호 (대구파티마)
15:10 ~ 15:25	부갑상선 호르몬, 고관절 골절 치유에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	김종원 (한일병원)
15:25 ~ 15:40	신장 질환자의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Ca, Vit D, BPs 사용해도 되는가?	권영주 (고려의대)
15:40 ~ 16:00	질의 및 토론	
16:00 ~ 16:10	폐회사 및 기념 촬영	황득수 (대한고관절학회 회장)